

광주 구청들 재활용쓰레기 대란 우려

남구 위탁업체, 주민 반대에 가동 중단...나주 업체 임시 계약 운영 동구 업체, 비용 등 이유 분리 않고 매립하거나 수거 거부 갈등도 수거업체·임시직 선별인원 계약 끝나면 골머리...전반적 점검 필요

광주지역 일부 자치구에서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놓고 수거업체와 구청·주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거업체는 쓰레기 과다배출과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분리 없이 매립하거나, 수거 자체를 거부해 관할 구청과 대립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선 재활용쓰레기 수거·분리업체가 들어선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가동 자체를 가로막는 바람에 인근 자치단체에 임시로 처리를 위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난 31일 광주지역 자치구들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올해 재활용쓰레기 수거·처리 민간 위탁 수탁자로 광산구 임곡동의 A업체를 선정했다. A업체는 지난 15일부터

남구 재활용쓰레기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들어선 광산구 임곡동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대형 트럭 통행에 따른 주민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재활용 처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업체 설립 인가를 내줬던 광산구청도 주민 민원에 따라 최종 승인을 미루고 현장 점검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남구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업체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지난 15일부터 나주의 한 폐기물업체에 재활용쓰레기를 1t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최대 50t 분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4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남구지역 재활용쓰레기 배출량은 1일 1t정도로, 50t 처리 계약이 끝

나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광주 동구는 최근 쓰레기 수거 위탁을 맡은 B업체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바람에 갈등을 겪었다.

해당 업체는 "현 2.5t 차량 1대로 7개동의 재활용 수거가 어렵고, 특히 월요일엔 배출량 과다로 당일 수거도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여기에 재활용 구분없는 혼합배출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 하차시 현 인원으로 선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결국 해당 업체에 지도·점검 등 행정조치를 했으나, 이후 업체에서 일반·재활용쓰레기가 뒤섞인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주민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동구는 재활용 선별장 인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수거차량을 1대 더 확충하는 방식을 통해 쓰레기 수거를 재개했다.

하지만 확충한 쓰레기 선별 인원이 공공근로 등 임시직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재활용 분리 대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만 된다면 음식물 등이 묻은 재활용품은 녹여서 고체 연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재활용쓰레기 매립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구마다 재활용 배출 요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배출 혼선을 줄이고, 시민들도 철저한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등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재활용 선별과 매립 과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역 1일 평균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은 75t으로, 이 중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45t(6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t은 매립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임대료 과다” 금남지하도 상인들 민사소송 기각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상승했다며 광주도 시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금남지하도상가 상인 16명이 광주도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남지하도상가는 관리청인 광주시가 광주도시공사에 상가 관리를 위탁했으며, 공사 측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상인들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매년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하며 임대료도 임대료 상승으로 시세가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정

해야 한다며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변영회와 함께 감정을 실시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기준이 현저히 반사회적이나 반도덕적이라 볼 수 없어 계약 효력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주요 상권의 연 임대료가 ㎡당 30만4000원 수준으로, 5평(16.5㎡) 남짓한 점포 한 곳에 연 500만원을 내는 셈이다. 특히시가표준액의 5% 수준을 유지하는 서울 등 다른 도시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영세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항소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사청탁 금품 상납하려는 소방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인사 청탁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소방공무원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소방공무원 A(지방소방경)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임에도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인사권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주려 했다”며 “뇌물 범행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0일 전남도청 내 전남소방본부장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전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가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금품 금지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과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정심사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2018년 5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7개 대학 ‘김정은 서신’ 대자보...경찰 수사 나서

전남소재 7개 대학 인근에 ‘김정은 서신’이라는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1일 오전 8시 48분께 목포 3개 대학 인근에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순천 2개 대학과 광양 1곳, 영암 1곳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등 전남에서만 총

7개 대학 8곳에서 대자보가 발견됐다. 가로 55cm, 세로 80cm의 대자보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이윤추구 박살 됐다’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풍자하는 내용이 적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대자보는 보수단체가 전국적으로 붙인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만취 택시기사 차량 9대 열쇠로 끊어 1100만원 물어줄판



○...만취한 상태로 귀 가하던 중 주박가에 주차된 차량 9대를 열쇠로 끊은 60대 택시기사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67)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15분동안 광주시 북구 무암동 무등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에쿠스, 그랜저, 쏘렌토 등 차량 9대를 열쇠로 끊

어 1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

○...최초 3대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차량 6대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반대 서명운동 벌인 구의원 무죄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기초의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모 구의회 소속 A(여·55) 의원과 친목 모임 회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명을 작성해 서명을 받고 같은 해 2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낙선 운동이라고 보고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동조한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섭 후보의 출마가 공식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명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출마 공식화 후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비방이 아닌 추상적 논평에 그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서명 운동 당시 이용섭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관순 열사 뜻 새기며 평화행진

지난 31일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들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일보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까지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 정신 선양 일본인회 제공>

강풍·높은 파도에 해양사고 잇따라

인니 선원 사망·어선 표류

주말동안 강풍과 높은 파도로 전남 서해안 곳곳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30일 밤 10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인근 바다에서 인도네시아인 A(34)씨가 항구 앞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풍랑주의보 발효

로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가거도로 피항 온 어선 B호(37t)의 외국인 선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께 입항한 선원 11명과 가거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6시께 다른 배의 선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일행들과 헤어졌으며, 이후 어선 B호 인근 바다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8시 40분께에는 신

안군 자은도 서쪽 1.8km 바다위에서 선장 이모(42)씨 등 2명이 탄 어선 C호(4.98t)가 연료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났다. 선장이씨와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은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어선 C호를 신안군 비금 원평항 인근 안전해역까지 예인했다.

같은 날 밤 9시 45분께에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4.8km 바다위에서 어선 D호(55t)의 선원 김모(46)씨가 통발을 올리던 작업중 왼쪽 중지와 약지 손가락이 양망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